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 영 란(경인여자전문대학 간호과)
양 순 옥(한림대학교 간호학과)

목 차

I. 서 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VI.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은 그 인간을 구조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그 시대의 주된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인간의 건강과 건강관리도 그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오늘날까지 남성중심의 가치관이 지배적이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상대적인 심리, 사회, 문화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과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여성이 사회의 차별과 모순된 구조속에 존재하므로써 가지게 되는 여성의 건강상 문제는 생의학적 모델에 의해 모두 질병으로 취급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되므로써 여성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각은 사회운동과 여성학자들에 의해서 여성학적인 시각으로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

작하게 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함께 미국 클리턴 정부의 보건방향 제시(1993) 및 우리나라의 보건백서(1995)의 제시방향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건강문제의 패러다임이 질병을 중심으로 다루던 의료 패러다임에서부터 약물남용, 물질남용, 10대 임신 등 다루는 공중보건 패러다임으로 더 나아가 성폭력, 가족폭력을 다루는 사회, 환경적 패러다임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하에서 여성을 위한 간호의 관심은 과거 생식기계 중심의 임신, 출산에 대한 관심에서 여성을 총체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여성의 역할, 인식, 경험, 신념 등 가족과 사회내에서 여성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심을 두는 사회문화적 건강문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경되었다. 즉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모성으로서 총체적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건강문제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내구타, 성폭력, 성희롱, 미혼모, 독신녀, 별거와 이혼, 고용과 차별, 여성 근로자의

건강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혼모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1960년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급속히 전개된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 서구로부터의 성 해방 풍조의 급속한 파급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로 이성교제의 기회는 더욱 많아지는 반면에 전통적인 가족적 도덕적 규제의 약화는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 연령은 낮아지고 행동의 자유는 커짐에 따라 성에 대한 행동은 적극적인 양상을 띄며 대중매체를 통한 성의 자극도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성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미혼모의 문제이다(이 연재, 1985).

미혼모(unmarried mother, unwed mother, single mother)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하며 그중에는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혼외, 별거, 과부의 상태에서 법적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임신한 경우도 있다(유유박 재인용, 1980; 양 인순, 1988). 미혼모 문제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날 급증하는 미혼모와 미혼모 연령의 저하, 고 학력, 평범한 가정에서의 발생 경향 등은 이러한 문제가 점점 감소되기 보다는 심각도가 심해짐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부인회 총 본부가 1988년과 1992년에 실시한 미혼모에 대한 대 단위 조사(동아일보, 1992. 12. 8; 서울신문, 1988. 11. 30; 경향신문, 1988. 11. 30; 동아일보, 1988. 11. 30; 경향신문, 1992. 12. 8; 한국일보, 1992. 12. 4)와 1987년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사(서울신문, 1987. 12. 5; 동아일보, 1987. 12. 3)는 정상가정의 고 학력 여성의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고 미혼모 연령이 저하되고 있으며 학력은 높아졌으나 임신, 출산 등,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더우기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이를 죄악시하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게 지속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미혼모는 죄의식, 수치심, 소외감 등을 경험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포기하는 등의 생활기반을 잃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김 상숙, 1988) 이러한 이유로 미혼모는 산전 산후의 건강관리에 소홀하게 되어 자신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충분한 영양섭취와 휴식의 부족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 모두를 나쁘게 만든다.

한편 간호 전문직의 대부분이 여성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간호현장을 여성학적 시각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주위의 환기가 요구된다. 특히 고위험 환경에 있는 미혼모들은 미혼여성과 임신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 우리는 이들에게 사회 통념적인 비판적 시각으로 그들을 보지는 않았는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간호의 본질상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그들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나타난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잘 유지, 증진하도록 돕는 것이 간호의 궁극적 목적임을 상기하다면 우리 스스로 이 현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탐색해봄으로서 그들의 경험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아가 미혼모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중재개발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모의 임신경험 과정을 탐색, 기술하여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미혼모들의 임신경험을 이해하므로써 이들에게 꼭 필요로 되는 간호중재를 모색하도록 자극할 수 있어 간호중재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선행연구의 경향

지금까지 미혼모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미혼모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한 유 유박(1980)의 논문과 김 소진(1975)의 논문만 미혼모를 대상으로 면접법을 이용하였고 그 외의 것은 대부분 설문지 조사, 문헌고찰, 또는 미혼모 시설과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미혼모는 연구대상의 주된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 기관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려고한 김 지열(1974)의 논문이 있었고, 관련 연구논문과 문헌을 통하여 미혼모의 발생요인 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복지정책에 관해 제언을 한 양 인순(1988)의 논문, 문헌연구와 함께 수용시설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여 시설 프로그램의 현황과 미혼모의 요구를 조사한 김 상숙(1988)의 논문, 관련 연구와 문헌 그리고 관계자들의 면접과 관찰을 통해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적 방안을 연구한 장 소영(1976)의 논문 그리고 기존의 통계자료와 연구결과, 면접과 관찰을 이용한 김 소진(1975)의 논문이 있었다. 또한 미혼모 뿐 아니라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도 2편(이 연재, 1985; 김 근조, 1984)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면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 특성의 파악, 그들의 요구사정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대책과 대안책 제시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법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질적인 자료의 이용보다는 양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갔다. 이에 본인은 좀 더 미혼모의 입장을 잘 드러내주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 임신경험의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근거이론방법론을 사용하였다. Glaser와 Strauss는 근거이론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준다고 했으며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주 목적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작용하는 핵심적이고 부수적인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상황을 설명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Strauss 와 Corbin(1990)에 의하면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 융통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자료수집과 분석이 상호연관된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면담을 통해서 자료들이 모여지는 처음 순간부터 분석을 시작하며 분석하는 동안에 연구자가 질문한 내용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다음 자료수집시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재수집하게 되면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다음번 면담이나 관찰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자료(Raw data)를 개념화한 개념이 분석의 기본단위가 된다. 즉 관찰하거나 면담을 해서 모은 자료인 사건(incident, event, happening)들을 그 현상의 잠재적인 표식자로 간주하고 거기에서 개념적 명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은 분석이 계속됨에 따라 수가 많아지고 추상화된다.

셋째, 같은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들은 한데 묶어져서 범주를 형성한다. 범주는 개념보다 상위수준이며 추상적이다. 범주는 그 개념이 나타내는 현상의 속성이나 차원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 개념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개념을 표현하고, 이 상황개념으로 인해 생기는 작용, 상호작용,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기는 결과를 뜻하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이어야 한다.

넷째, 표본추출은 이론적 근거에서 행한다.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어떤 관념을 그 연구에 적용하여서, 이 현상을 대표할 만한 지역, 조직, 개인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에 의해 대표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일관성있게 자료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한

다. 한 사건이 관찰되면 다른 사건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여기에서 나온 개념들은 이전에 나온 개념들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범주화한다. 비교를 하는 것은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으며 정확성과 일관성에 도움을 준다.

여섯째, 근거이론내에 과정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즉 과정은 하나의 현상을 단계(stage, phase, step 등)로 나누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상호작용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일곱째, 처음 부호화를 할 때부터 연구가 끝날 때까지 이론적 메모를 기록해야 하며 메모는 근거이론을 만드는 하나의 통합된 부분이다.

여덟째, 범주간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은 연구과정 동안에 많이 개발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아홉째, 똑같은 실제영역에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개념들과 개념간의 관계를 검증하며 토의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이론적인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근거이론방법에서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부호화를 말하는데, Strauss & Corbin(1990)은 부호화의 과정을 개방 부호화(open coding), 연결 부호화(axial coding), 선택부호화(selective coding)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개방 부호화(open coding)

자료를 분석하는 해석적인 과정으로 이 부호화의 목적은 자료에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하거나, 이 현상에 관한 생각 등을 뛰어넘음으로써 새로운 분석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건/ 행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이런 것들에 명명을 하면서 개념적으로 유사한 사건/ 행위/ 상호작용은 모아져서 범주화되고 하위범주를 형성한다. 개방 부호화는 연구자를 현장으로 되돌릴 수 있게 하는 생산적이고 비교가능한 질문들을 자극한다. 이와같은 질문은 연구자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에 민감하게 하며, 그들의 실증적 적용에 관한 보다 깊은 주의를 할 수 있게 한다. 일단 집단간의 차이가 인식되면 연구자

는 각각의 특수한 속성이나 차원을 판독할 수 있으며 모호한 것은 부가적인 현장작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2) 연결 부호화(axial coding)

연결부호화에서는 범주들이 그들의 하위범주와의 관계를 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범주의 개발은 상황(condition), 맥락(context), 전략 및 결과의 '코딩 파라다임(coding paradigm)'을 통해 한 범주를 그 하위범주와 관련짓는 것이다. 이 부호화 동안에 연역적으로 제안된 모든 가설적인 관계는 계속 얻어지는 자료와 반복적으로 대조, 검증될 때까지 임시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한 사건이 그 가설을 버릴 것인가, 또는 검증할 수 있는 가를 나누는 충분한 근거는 아니다. 검증이 되려면 가설은 계속적으로 자료들에 의해서 나타나야 한다.

3) 선택부호화(Selective coding)

선택부호화는 모든 범주들이 하나의 핵심범주(core categories)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이 유형의 부호화는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한다. 핵심범주는 연구의 중심현상을 나타낸다. 핵심범주는 이미 규명된 범주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주요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로 되는 보다 추상적인 용어로부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밖의 다른 범주는 상황, 행위/상호작용적인 전략, 결과로써 핵심범주와의 관련성을 맺게 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종교부설 기관으로 시작되어 종교기관과 서울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미혼모 숙식시설에 있는 미혼모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3명은 산모 이고 3명은 임부이다.

2. 연구시기

본 연구는 1995년 12월 - 1996년 1월까지 10

회의 기관방문을 하여 면접하였다.

3. 연구방법

자료수집은 반 구조적 심층면접과 기관 입소 일지를 참고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Taylor & Bogdan(1984)과 Strauss & Corbin(1990)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과정

1) 미혼모 시설의 총무와 기관장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시설의 교육시간을 배려하여 본인이 강사로 구성된 간호사 임신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월요일 오전과 프로그램이 없는 토요일 오전을 이용하여 면담을 하였다.

2) 기관에서 선정해준 대상자에게 다시 연구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또한 시작 전에 녹음기 사용의 이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뒤 녹음을 하였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전사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작은 종이에 메모하여 책상위에 뒤집어 놓았으며 기억이 잘 안될 때 펼쳐 보았다. 면담은 45분에서 1시간 10분간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당 1-2회 면접을 하였다. 선택된 대상자들은 평소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경험이 많아서 조리있게 응해 주었고 그래서 예상보다 면담시간이 길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 대상자만 녹음기 사용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으나 연구의 목적을 재차 설명하고 나서 겨우 응하였다. 그외의 대상자는 모두 쉽게 이를 허락하였다.

3) 면담장소는 기관의 상담실을 이용하였고 참여자들과 연구자에게 친숙한 장소였으며 참여자들은 본 연구자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임을 소개받고 거리감이 많이 해소되어 면담에 잘 응해주었다.

4) 면담후 참여자의 입소카드에서 참여자의 나이와 가족력 그리고 미혼부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5) 자료의 분석은 참여자의 내용이 필사될 때 먼저 분석해 본다음 전체 6명의 내용을 모두 가지고

다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면담이므로 자료의 포화를 위한 추후면담과 이론적 표집을 하지 못하였다.

6)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을 사용하였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나 거부하는 참여자는 없었다.

7) 반 구조화된 연구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환경과 어린시절은 어떠했는지요?
- 어떻게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미혼모로서의 경험은 어떠셨는지요?
- 처음 임신이란 사실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 처음 알았을 때 어떠셨나요?
- 누구와 먼저 상의를 하셨나요?
- 가족, 친구나 동료, 사회의 반응은?
- 임신 확인후 이곳에 오기까지 어떻게 지내셨나요?
-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나 기관은?
- 가장 힘들었던 점은?
- 임신을 진단하는 과정에서나 진찰을 받을 때 '미혼모'로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그 이후 자신에게 있었던 큰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앞으로 아기와 엄마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 아기에 대한 생각은?
- 남녀의 이성관계나 성관계에 대한 생각은?
- 아기의 아빠에 대해서는?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2. 가정환경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나이	학력	종교	가족사항	의뢰기관	미혼부		기타
						학력	직업	
1	22세	고졸	천주교	부, 모	한국사회봉사회	고졸	군복무중	
2	21세	고졸	무교	부, 모, 4녀 1남 중 3째	애란원			
3	20세	중중퇴	무교	부, 모	대한사회복지회	중중퇴	건축노동	
4	21세	고졸	무교	부, 모, 1남 6녀 중 4째	에스더	대재학	학생	
5	24세	고졸	천주교	부, 모, 1남 1녀 중 1째	대한사회복지회	전문대졸		
6	17세	고 1	불교	부, 모, 3남 1녀 중 2째				성폭행

1) 대상자 1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성에 대해 완고하시고 억압을 하는 편이었다.

2) 대상자 2

부모가 별거상태이기 때문에 생활고로 인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적은 가정이었다. 형제들은 많았고 이들간에 우애가 깊은 편이었다. 대상자는 1남 4녀 중 셋째였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생계비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고 아버지는 생활비는 보내지 않고 자녀들 학비만 보내주었다.

3) 대상자 3

부모가 조기결혼하였는데 관계가 원만치 않아 이혼을 하였다. 아버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 어머니에 의해 보육원에 버려져 고아처럼 자라나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였다. 성격은 보수적이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친구처럼 대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상자가 친모를 닮아 그로인해 매를 맞기도 했다.

부모 이혼후 처음 1-2년은 큰 고모집에서 그후에는 친척 할머니집에서 몇 년을 지냈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새엄마는 아기를 낳지 않았고 비교적 관계가 좋았으나 아버지가 친모를 닮았다는 이유로 구박을 하자 관계가 악화되어 가출하였고 중학교도 중퇴하고 봉재공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4) 대상자 4

지방농촌의 평범한 가정의 1남 6녀중 4째딸로 성장하였고 가정이 화목하고 문제가 없었다.

5) 대상자 5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 신경을 많이 썼고 아버지는 자상한 편이었다. 형제남매가 있고 평탄한 가정이었다. 문제는 부부가 상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단지 결혼 초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 대상자도 친할머니를 싫어하였다. 가정의 종교는 천주교 이고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완고한 분위기의 가정이다.

6) 대상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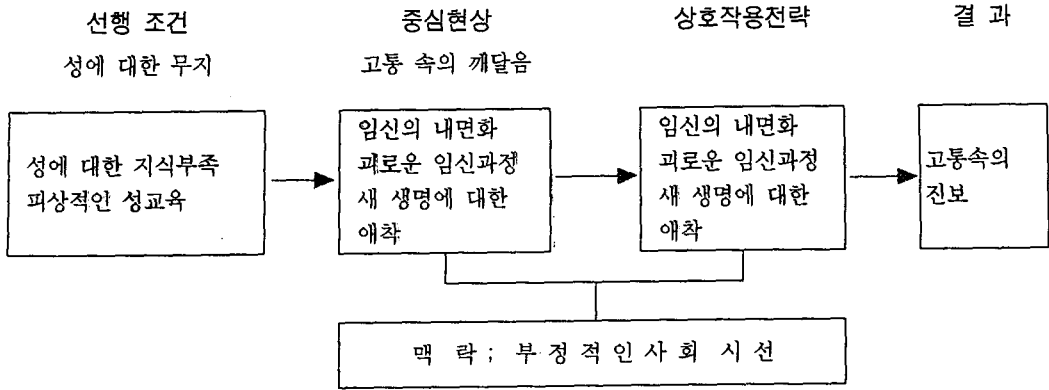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3남 1녀중 2째이며 할머니도 함께 사는 대 가족으로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다.

3. 자료의 분석결과

6명의 미혼모 면담을 분석한 결과 21개의 개념, 9개의 하위범주, 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일련의 분석적 파라다임을 형성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근거이론 파라다임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근거이론 파라다임 분류에 따른 결과제시

Strauss & Corbin(1990)은 근거이론 개발과정에서 범주들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관계에서 연결된다고 하였다. 즉, 한 현상의 발생 또는 발전을 유도하는 인과적 선행조건, 그 경험의 중심되는 사상과 사건이 관리, 조직되어지는 현상, 현상에 속한 일련의 구체적인 속성과 정도의 영역으로 정의되는 맥락, 주어진 맥락내에서 행동/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



[그림 1]

거나 방해하는 좀 더 광범위한 구조적인 상황인 중재상황, 현상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상호작용적 전략, 전략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의 관계로 연결된다. 이 모형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연결되는데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이러한 연구결과를 패러다임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자 하며, 먼저 중심되는 현상을 가져오는 인과적 조건인 선행요인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선행요인

대상자들은 성에 대한 피상적인 교육을 받아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채 계획되지 않은 성행동을 하므로서 미혼모가 된다. 성에 대한 지식부족, 피상적인 성교육은 괴로운 미혼모를 만드는 선행요인으로 확인되었다.

(1) 피상적인 성교육

대상자들이 받은 성 교육은 학교다닐 때 들었던 것이 전부였으며 그외에는 대부분이 상식 정도이거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내용은 생리, 신체의 변화등 신체적인 면을 강조한 것으로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기관에서 제공된 간호사의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말하였다.

학교는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

기있는 사람들 중에는 성에 대해 잘 모르고 수술비가 없어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피임과 같은 대책을 알고 있었으면 예방이 가능했을 거예요.

교육도 실제적인 것이 필요해요. 비디오를 보면 평범한 유흥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18, 9세가 되어 생리 기능이 원활할 때 피임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할 수 있는 임신들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임신이 되고 유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은 정말 큰일이예요.

중학교때 성 교육을 받았는데 주로 생리, 가슴의 크기등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 전부 다였어요. 이성관계나 임신과정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아는 거죠.

(2) 성에 대한 지식부족

미혼부와 알게된 경위에서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게 된 과정까지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그 상황이 혼인을 전제로 했는지, 독신의 성 즐거웠는지 또는 자유분방한 관계였는지가 다를 뿐 모두 성에 대한 지식부족을 나타내었다.

고등학교 1년때 미팅에서 만나 내 졸업식때 가족과 친지를 보내고 친구들과 나이트가서 는 다음 집에다 친구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말하고 그 남자랑 처음으로 같이 자게 되었다. 내 스스로가 결정한 것

으로 처음 관계는 어렵지 않았고 처음에 성교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였는데 처음은 아팠고 하혈이 심하고 걸을 때는 가족이 알아보지나 않을까 걱정할 만큼 힘들었다. 사람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후에는 처음보다 자유롭게 성관계를 2년동안 지속해 왔다.

배란기에 관계를 하여도 임신이 안되어 내가 불임인가 생각되었고 피임방법도 몰라 신경쓰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임신이 되었다. 그 남자도 처음이라 임신생각도 대책도 생각하지 못했다.

친구소개로 만나 성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임신 예방이나 무방비한 상태로 책임없는 짓을 했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 처음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임신을 할 때가 첫 성관계는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가려고 서있는데 길에 서 있던 봉고의 문이 열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밀어 넣고 그리고는 옆에 있던 내 친구마저 밀어 넣는 어디론가 멀리 가는 것이었어요. 미사리에서 인신매매범에게 잡혀 여러명에게 강간을 당하고 갇혀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한사람이 성격이 좋게 보여 그 사람이 있을 때 우여곡절 끝에 도망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 나는 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남자들만 성으로 여성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도 성으로 남자를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사귀면서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쉽게 헤어질 수도 있었어요. 임신으로 애 아빠를 잡을 생각은 없어요. 애 아빠는 유산을 권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마 하고 쉽게 헤어졌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임신이 되고 유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나 같은 경우는 강간을 당해서 그런지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불임인가 생각했지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볼까 생각도 했었고 피임도 하지 않았지요. 또 피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2) 중심현상

중심현상이란 대상자가 일련의 전략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상 또는 목표를 뜻한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미혼모들의 임신경험은 '고통속의

깨달음'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됨이 나타났다. 고통속의 깨달음은 성에 대한 무지라는 인과적 선행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대상자가 인지하는 것으로 이 현상에서 대상자들은 일련의 상호작용 전략으로 이에 대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예기치 않은 임신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일련의 현상으로 임신사실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또는 임신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부정하면서 임신을 지속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임신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는 무방비 상태의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개념들을 모아 임신의 내면화라는 하위범주를 형성하였다.

임신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한 후에는 임신을 숨기기 위한 긴장감, 사실발각에 대한 두려움, 낙태권유와 책임전가시의 괴로움, 쉽게 시작한 성관계에 대한 후회감, 예기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5개의 개념들을 묶어 괴로운 임신과정이라는 하위범주를 형성하였다.

대상자들은 임신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괴로운 임신과정을 겪으면서 뱃 속의 아기에 대한 마음이 미움에서 애정으로 변화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2가지 개념을 묶어 새생명에 대한 애착이라는 하위범주를 형성하였다.

또한 임신의 내면화, 괴로운 임신과정, 새 생명에 대한 애착의 하위범주들을 묶어 '고통 속의 깨달음'이라는 상위범주를 형성하였다.

(1) 임신의 내면화

미혼모가 임신을 수용하는 과정은 임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임신을 부정하면서 진행하기, 그리고 무대책으로 임신을 진행하기 등의 세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그 각각의 범주에 들어가는 원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신의 적극적 수용

임신한거를 한달도 안되서 알았어요. 생리에정일은 똑같았지만 하는게 불규칙했어요. 느낌이란게 있잖아요. 임신이란걸 알고 처음에 체증이 되게 안 좋아서요. 유산될까봐 걱정이 되서 병원은 무서워서 못가겠더라고요. 4개월 무렵인가 병원을 가고 그때

부터 거의 꾸준히 한달에 한 번 꼴로 갔어요. 그래서 애기 상태가 어떻다는 것까지 알았고, 혈청검사, 혈액검사, 심장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애 아빠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의 혼자 갔어요.

3개월 때 생리는 한 번 걸릴수도 있고 그전에 배란일 때 성관계를 해도 임신된 적이 없었고... 그러다 2번째 생리즈음에 입덧이 심하여 병원 가서 검사하여 확인하였어요. 임신을 그때 알았고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본인은 독신주의이지만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 생각되어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② 임신사실의 부정

처음부터 관계했을 때 임신인가 생각했어요. 월경 생리일이 지나면 임신이잖아요. 배란일도 알고 있었고 우리 집이 조금만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다면 이것 저것 해보고 병원에도 가 보았을텐데 나는 이미 임신일 줄 알고 있었고 미혼모인 상태에서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본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부정하려고 했어요. 나는 임신이 아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배가 막 불러오고 회사를 그만 두고 집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태동이 막 느껴지잖아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병원에 가는 것도 무섭고... 원래 병원에 가는 것을 무서워했거든요. 약국에도 못가고 혼자서 끄끙 앓았어요.

저는 이곳에 올때까지 병원이나 약국에 가본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밥 먹고 TV보고 모든 것이 일상생활같은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했더니...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어요. 아기는 마치 없는 것 같았고 나중에 태동이 있을때는 마치 작은 공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그래요. 무슨 다른 일을 하다보면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이 사실로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현실이 아닌 것 같더군요.

③ 임신에 대한 무 대책

5월이 지나 월경이 불규칙하여 4월 경에 눈치를 채고 배가 나와 5월경에 확실히 알게 되어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아무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지냈어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귄 오빠들과 함께 놀면서 지내다가 예상치 않게 이렇게 되었어요. 숨기고 지내다가 어머니께 겨우 알리고 함께 병원에

갔어요. 그때가 임신 8개월이라 돌려서 낳자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면 나중에 아기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아기를 죽이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기를 낳기로 했어요.

(2) 피로운 임신과정

미혼모들이 임신을 진행시키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은 임신을 숨기기 위한 긴장감, 사실 발각에 대한 두려움, 낙태권유와 책임전가시의 피로움, 쉽게 시작한 성관계에 대한 후회감, 예기되는 어려움 등이 피로운 임신경험을 하게 하였다.

① 임신을 숨기기 위한 긴장감

회사는 5개월에 그만 두게 되었어요. 그때가 아니면 그만 둘 수 있는 시기가 없고 그러면 사실이 발각될 것 같았어요. 그 남자도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어요. 직장에서도 혹시 누구에게 눈치챌까 긴장의 연속이었고... 집에서도 집 식구들 속이 느라 긴장했어요. 어머니나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끄끙앓았어요. 피로운 낱의 연속이었어요. 나중에는 왜 이렇게 살이 찌느냐고 하면서 의심스러워 하는데... 그리고 끝 무렵에는 흑신 임신이 아니냐고 어머니가 물어서 생리했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임신을 한줄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곧 집을 나왔지요.

엄마랑 목욕탕같이 3년동안 다녔는데...임신을 알리지 않기 위해 엄마랑 목욕탕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몰인정하게 거절했어요. 동네의 목욕탕도 피하고 멀리 사우나탕에 갔어요. 또 어려웠던 점은 자주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물도 적게 먹고 참고 참다가 못 참게 되었을때만 다녀오곤 했어요. 대소변 보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른들이 나가고 나면 그때 자주 자주 다니면서 시원히 하곤 했죠. 그래서 엄마보고 자주 외출할 것을 권했고 그때가 제일 편했어요. 입덧도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는 것처럼 수도물도 틀고 변기물도 내리면서 조용히 토했기 때문에 식구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 긴장되게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가족이 알게되면 큰일이 나니까요.

일을 할 때나 서 있을 때도 몸이 자꾸 뒤로 넘어가서 그것을 숨기느라 힘들었어요. 일을 할 때도

매우 움직이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실 때는 조금만하고 나가시면 힘들어요. 몸을 편하게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나가실 때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을 다 잘 해 놓으니까 의심을 하지 못했죠.

기억에 남는 일은 여름에 옷을 얇게 입고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불도 얇으니까 아기의 태동이 잘 보이더라구요. 그때도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노크도 없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기의 태동이 어떻게나 심한지 이불 위에서도 다 보일 정도 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그르게 그만 옆으로 돌아 누으면서 배를 막 때렸어요. 아기가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가 꼭 본것만 같아 괜히 노크도 하고 오지 않아 놀랐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② 사실발각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아버지랑, 오빠는 친구네 집에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돌리시니까 언젠가 아빠에게 탄로 날까봐 걱정이예요. 엄마가 친구랑 어디 갔다고 둘러대고 계시대요.

가족 쉬는 날. 성당가거나 외출할 때 남의 시선 때문에 피롭게 긴장하며 피했다녔어요.

집에서는 가슴과 엉덩이가 커지니까 그것을 보고 어머니나 주위에서는 사춘기여서 그런가 보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동네 아줌마들은 왜 저렇게 몸이 부푸는가 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매우 걱정이 되었어요. 오히려 동네의 시선이 더 무섭더라구요.

학교에서는 가정계통의 선생님이나 양호선생님이 아실까봐 매우 조심했어요. 또 입덧을 할 때 아이들은 속이 나빠서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숙한 아이들인 경우에는 임신인지를 묻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우겼지요.

③ 낙태권유와 임신에 대한 책임전가시의 괴로움

저희 부모님이 낙태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인제 그 오빠 부모님이 제가 애 집착이 강해서 제가 우겨서 애기 낳겠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이 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

는데 저는 임신초기에 분명히 애 아빠랑 상의해서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 문제였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다고 얘기하실 때 참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④ 쉽게 시작한 성관계에 대한 후회감

현재의 생각으로는 제가 바보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성관계를 했어야 했는데 결혼전에 성관계를 하고 그 후에 임신을 하니까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장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애 아빠랑 진실한 관계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남녀관계라는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사귀어서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귀고 뭐... 저도 지금 그게 후회되는데 만난지 얼마 안되어 성관계 갖고... 뭐 1년. 이제 애 아빠랑 만난지 1년이 넘었거든. 근데 너무 빠른 것 보다 기름종이에 기름이 자연히 먹듯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급한 것 보다는 서로를 깊이 더 알때까지 어느 행동을 한다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임신 예방법을 알았다면 남녀가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부로 성관계를 가지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이 가져온 유산 비디오를 보면서 임신 전의 정자와 난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생명 이전의 것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반면 우리의 성교는 장난이나 게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생명이 소중한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한 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⑤ 예기되는 어려움

미혼모들이 앞으로 하는 걱정으로는 아기를 떠나 보내고 나서 '아기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어떻게 다시 화합하면서 지낼까하는 '재화합시의 두려움' 그리고 '출산의 고통과 몸매 변화에 대한 염려'였다.

i) 아기에 대한 그리움

아기가 너무나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나가서 재기할 때... 애가 너무 보고 싶고, 내가

변해서 감정이 없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사랑도 느낌없고 혼자서 서고 싶고

ii) 가족과의 재 화합시의 두려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가출한 상태라 어떻게 알려야 할지...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어머니랑 할머니랑 대할지 그것이 좀 그렇고 두려워요.

iii) 출산의 고통과 몸매의 변화

앞으로 출산시의 고통과 몸매가 처녀같지 않게 변할까 하는 것이 걱정이예요.

(3) 새생명에 대한 애착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피로운 임신과정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은 뱃 속의 아기에 대한 마음이 미움에서 애정으로 변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생겨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① 미움에서 애착으로

처음에는 아기로 인해 하던 일도 그만 두어야 하고 직장도 그만 두어야 하고 그래서 아기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탄생의 신기함과 아기에 대한 사랑이 많이 생겼어요.

7개월까지만 해도 아기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었어요. 아기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이렇게 불편을 겪는게 너무나 싫고 미웠어요. 그래서 5,6개월 때 배를 많이 때렸어요. 너무나 싫었어요.

8,9개월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남은 시간동안 아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② 아기에 대한 생명존중

유산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게도 아기에게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애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떼어요. 저는 원래 학교다닐때부터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배 속에서 꿈틀거릴 때 마다 은근히 위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더 더욱 아기에게 잔인한 방법은 더 못쓰겠더라구요. 저는 아기를 키우고 싶었어요. 정말로...

독신주의지만 생명이 소중한니 아기를 낳아서

혼자서 키우겠다고 결심했어요.

임신초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생겨났어요. 이전에 전혀 몰랐던 것이죠.

3) 맥락

맥락이란 현상이 발생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서 특별한 현상에 대한 관리실행 및 조절을 위해 상호작용 전략이 취해지는 특수한 일련의 조건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들이 피로운 임신경험과 양육방법의 결정,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어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맥락이라고 정하였다.

(1) 사회의 부정적 시각

그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족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다가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나 언니들의 그 눈초리 그리고 나중에 친척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눈초리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아시면 매우 놀라시고 화 내실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대할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 생각되어 아이를 낳으려 하며 남자는 결혼하자고 제의하지만 나는 결혼을 원치않아요. 직장에서 입맛을 참으려고 노력했고 원래 배도 똥배가 없어서 7개월까지도 표가 나지 않았고 표가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미혼모를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를 주위에 알리지 않으려고 긴장이 컸어요.

4) 상호작용전략

전략이란 일련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현상을 관리하거나 대응하려는 개인 또는 집단의 작용/ 반 작용을 가르친다. 이러한 전략은 본질면에서 과정적이고 발전적 순서를 나타내며 목적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대상자들은 출산후 아기의 양육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해외입양의 장법을 수용하여 해외 입양을 보내거나 혼자서라도 아기를 키우려고 한다.

또한 아기양육에 대한 결정이외에도 출산후 앞날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하게 된다.

(1) 양육방법의 결정

① 해외입양의 장점수용

스칸 브링크의 아리랑이 실화인지 알았는데 어느 기자의 가습거리를 부푸려서 만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구 여기에 입양간 아이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을 낙태시키지 않고 낳아주시고 비록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훌륭한 기관에 입양시켜 준 것 만으로도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요. 뼈뿔게 키우기보다는 차라리 보다 밝은 가정에 가서 키우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차츰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곳보다는 성 차별도 없고 여러 가지 기회도 많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아기의 아버지를 만날 염려도 없고... 부모를 원망하기 보다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양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죠.

남들은 아기를 낳아서 버린다고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기를 죽이지 않고 아기에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너무 고정적으로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머니가 희생하는 면도 있는데...

② 혼자양육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기를 혼자서 키울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 거예요.

(2) 앞날에 대한 계획

아기를 입양을 보내거나 자기가 혼자 키우거나 간에 모두 그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 더욱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아기에 대한 미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기 위해 무언가 준비를 하여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1,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아기를 입양보낸 것이 잘 했다는 생각이 들때까지 집이랑 연락을 끊하려고 해요.

컴퓨터 그래픽을 배워 그에 대한 전문적인 일

을 하면서 아기와 열심히 살거예요.

지금은 불효하고 있지만 이제 자유롭게 되면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다시 학교생활에만 전념할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5) 결과

중심현상인 '고통 속의 깨달음'에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이 취해져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괴로운 미혼모의 임신경험을 통해 고통후의 진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고통후의 진보

① 하느님을 만남

그때에는 하느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느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저 혼자서 끄끙 앓다가 이곳 애란원으로 왔죠. 이곳에서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요. 처음에는 예배에만 참석했는데 지금은 하느님을 받아 들이고 모시게 되었어요.

② 생명의 소중함과 성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낌

생명탄생의 신비함을 느끼고 성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③ 돈 쓰임의 중요성과 돕는 일의 가치를 인식

전에는 유흥비로 돈을 많이 낭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여러 명 생활을 하는데... 계절마다 다양하게 먹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감사했어요. 나중에 돈을 아껴쓰면 이곳의 몇 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한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그전에는 그것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나. 가설적 관계개요

가설적 관계개요란 연구의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기술을 분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념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관계개요는 다음과 같다.

성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미혼모가 된

여성은 임신 사실을 부정, 적극적으로 수용 또는 무대책으로 진행시키면서 피로운 임신과정을 겪게 된다. 그들은 임신사실을 숨기기 위한 긴장감, 사실발각에 대한 두려움, 낙태권유와 책임전가시의 피로움, 쉽게 시작한 성관계에 대한 후회감, 예기되는 어려움등으로 피로운 임신과정을 겪게 된다. 이때 대상자들은 아기 대한 마음이 미움에서 애정으로 변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거나 해외입양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아기의 양육에 대한 결정을 하며 출산후 자신의 앞날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성생활과 돈의 쓰임새, 자원봉사의 중요성등을 깨닫게 되면서 성숙하는 고통후의 진보 경험을 가지게 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보건관리자의 주된 관심에서 벗어나 부수적인 건강운제로 여겨졌던 미혼모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임신경험을 그들 시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그들 입장에서 간호중재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적이고 사회 통념적인 비판적 사고를 벗어나 미혼여성이며 임신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가진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혼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속에 있는 여성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미혼모를 위한 간호중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일차적 예방의 차원에서 미혼모 발생의 선행요인으로 나타난 성에 대한 무지를 개선하기 위해 생의 주기에 알맞는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성교육은 한 시점, 한 장소에서 갑자기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생의 각 시기에 알맞는 성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는 간호사들은 신혼부부 시기부터 노년기 까지 각 가정의 발달단계에 알맞는 성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치원, 초, 중, 고 및 대학교에서도 피상적이며 일회적인 교육보다는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서 교육을 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교육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계속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차적 예방의 차원에서 미혼모들이 겪는 중심현상인 피로운 임신과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므로써 좀 더 이들이 건강하게 이 경험을 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을 삼도록 지지할 수 있다. 즉 이들이 어려워 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 그리고 예측되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간호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사회 자원에 의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혼모들은 유산을 최선책으로 여겨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또 다른 제이, 제삼의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미혼모들은 임신경험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각성과 함께 성숙된 사고를 하므로 다시는 미혼모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고 새로운 성숙된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된다.

셋째, 삼차적 예방의 차원에서 미혼모들이 취하는 상호작용전략 즉 양육방법의 결정, 앞날에 대한 계획 등을 지지하므로써 그들이 출산후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지한다. 즉 취업준비, 학업계획, 이전 생활로의 복귀 등을 도와 성공적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VI. 연구의 제한점

1. 연구 참여자의 선택에 있어 기관의 관련자가 면접에 응하여 잘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자만을 선택 하였으므로 다양한 참여자가 선택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상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오랜 시간 면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2. 1- 2 회 면담에 국한 되었으며 이론적 표집을 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김근조(1984),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
- 김부자(1986),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 태도에 관한 연구. 이대 가정과 교육전공 석사
- 김상숙(1988), 미혼모 보호시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
- 김지열(1974), 미혼모에 대한 기초적 연구. 이대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
- 김태진(1975), 사례상에 나타난 미혼모의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 석사
- 김혜숙(1995), 여성건강: 연구와 교육의 미래방향. 대한간호 34(3):18, 6-14
- 장영복(1997),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성 문제의 실태. 보건간호소식 7:4-8
- 장소영(1976), 미혼모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사업적 방안 연구. 이대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
- 양인순(1988), 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고찰. 중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
- 유유박(1980), 한국의 미혼모 문제와 그 대책. 중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
- 이연재(1985), 미혼모의 발생요인과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마산, 울산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중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
- 한상순(1997), 여성의 건강관리:미혼모. 국립보건원 모성건강관리반 보수교육교재
- 한영란(1997), 여성의 사회문화적 건강문제와 간호. 서울시 간호사회 보수교육교재
- Griffith-Kenney, J(1986), Contemporary women's health ; a nursing advocacy approach.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Fogell, CI & Woods, NF(1986), Health care of women ; a nursing perspectives. Mosby
- Strauss, AL & Corbin, J(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
- Taylor & Bogdan(1984),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John wiley & Sons

= ABSTRACT =

The Study on the Pregnancy Experiences of Unmarried Mothers

Young-Ran Han (Dept. of Nursing, Kyung-In Womans Junior College)
Soon-Ok Yang (College of Nursing Science, Hanlim University)

The pregnancy experiences of unmarried mother threatens womens' health by social prejudices.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fact that nurses do not have much understanding of the pregnancy experiences of unmarried mother and cannot provided fully supportive care of them.

This study was done to understand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pregnancy by unmarried mother. To do this,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was used.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unmarried mothers admitted to the social welfare center in Korea. All interviewee were six and between 17 to 24 years old women. Their confidential information was insured.

The data were analyzed in the framework of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s mapped out by Strauss(1991). 21 concepts, 11 sub-category and 6 category were confirmed in the analysis. In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sufferd pregnancy process' was founded to be the core phenomenon.

In Conclusion, through their suffered pregnancy experiences, unmarried mothers had been a process to grow up, planned for the future and became a mature woman.

This study supports the need to develop a role model for nurses in providing appropriate support to the unmarried mother, which will lead to an improvement i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unmarried mothers.

한국보건간호학회지 투고규정

1. 본 학회지의 투고 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비회원인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투고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 연구를 하였을 때
 - 2)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을 때
2. 본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종류는 간호, 보건학 범위내에서 원서, 종설, 사례보고 등으로 하며, 그 이외의 것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3. 타지에 게재된 동일내용의 원고는 본지에 게재할 수 없다.
4. 각 원고의 수정과 채택여부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고, A4용지에 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다.
6. 국문원고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는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7. 원고 제 1면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목을 표기하고,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을 국문으로 명기한다.
8. 원고 제 2면에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표시한다.
9. 게재논문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의 순서 : (1) 서론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및 논의 (5) 결론 및 제언 (6) 참고문헌 (7) 초록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그림 및 표는 A4용지에 흑색잉크로 선명하게 그리며, 그림에는 설명을 하단에, 표에는 제목을 상단에 표기한다. 또한 원고내용에 그림이나 표가 들어갈 자리를 표시한다.
 - 3)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그 원자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C.G.S단위를 사용한다.
 - 4) 본문속에 문헌을 인용한 경우 성명과 논문 발행 연도를 괄호안에 표시한다.
 - (1) 저자가 한명 혹은 두명인 경우는 본문내에 인용될 때마다 성명 및 연도를 기입한다.
예) 김명순과 양영희 (1995)는...
 - (2) 저자가 3인이상 5인 이하인 경우는 첫 인용

- 에는 저자의 성명을 모두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국문의 경우 첫 저자의 성명과 등, 영문의 경우 첫 저자의 성과 'et al.' 및 연도를 표시한다.
- 예) 국문 : 정문희, 이명숙, 김규성 및 서인선(1993)은 보건소에서..... 첫인용
정문희 등(1993)의 연구에서는..... 재인용
예) 영문 : Williams, Jones, and Smith(1989)는 환자가..... 첫인용
Williams et al.(1989)은 환자들의.. 재인용
- (3)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1 저자의 성명에 '등'이나 'et al.' 을 쓰고 연도를 표시한다.
참고문헌목록에는 전체저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예) 정문희 등(1993)은 보건소 및 산업장에서의... 첫인용, 재인용 모두
- (4) 같은 성의 저자가 쓴 논문이 같은 연도에 여러개인 경우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인은 성명의 전부를, 외국인은 성을 쓰고 이름은 첫글자(initial)만 표기한다.
예) 국문 :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소우, 1985; 이복자, 1985)에서는...
영문 :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미국의 연구(Volicer, K.A., 1988; Volicer, A.W., 1988)에서는...
- (5)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대 순으로하여 ' . '로 띄어 쓰고 저자명은 각 논문마다 반복하지 않는다.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한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한 후 a,b,c 등을 부가하고 연도는 반복한다.
예) 국문 : (김영자, 1976, 1978, 1989a, 1989b)
영문 : (Price, 1988, 1991a, 1991b, in press)
- (6) 본문내에서 여러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

용된 때에는 제1저자 성의 가나다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 한다.

예) 국문 : 이완요법을 간호증개로 사용한 연구들(김영숙,1986; 박순례,1976; 황기석,1979)에서...

영문 : 최근의 여러 연구(Brown & Smith, 1987; Williams, 1991)에서 같은 연구 결과를...

5) 참고문헌 기술은 다음의 형식으로 한다.

(1) 정기 간행물 : 모든 저자의 이름(last name, initials), 출판연도(괄호속), 제목, 잡지명(full name), 권(호) : 면

예) 국문 : 강영실 (1992), 보건진료원을 위한 보수교육 전략의 개발방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6(1) : 5-14

영문 : Holmes, T.H. & Rahe, R.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 213-218

(2) 책: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도시:출판사명, 면

예) 국문 : 이훈구 (1984), 현대심리학 개론, 서울: 정변사, 13-18

영문 : Asterita, M. (1985), *The Physiology of Stress*(2nd ed),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20-23

(3) 학위논문: 저자 (년도), 논문제목, 졸업학교

예) 국문 : 박금례 (1988), 일부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월경증상호소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영문 : Kim, S. (1978), Preparatory information, anxiety and pain: A contingency model and its nursing implic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0. 학회지는 년 2회(3,9월) 발간하므로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한다.

11. 투고할 원고는 2부(1부 원본, 1부 복사본 또는 디스켓)를 제출한다.

12. 게재 논문 인쇄의 교정은 저자가 하며, 게재료, 특수조판비, 별책대는 본 학회규정에 따라 저자가 부담한다.

13.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다.